

## 유해 난연제 사용저감을 위한 토론회 개최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브롬화 난연제'의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산업계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정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련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해 난연제 관련 정책토론 및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브롬화 난연제(BFR)는 플라스틱 제품이 불에 잘 타

지 않게 하는 난연제에 브롬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생산이나 가공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노출되거나 최종제품 사용과정 등에서 대기, 수질, 토양 등으로 환경에 노출되어 인간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환경적 위해성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토론 및 발표회에서는 환경부 김동진 유해물질과장, (사)녹색환경연구소 홍 선 연구실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은선 선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외 난연제의 이용현황과 유해성 저감방안', '브롬화 난연제의 국제적인 규제동향과 대응방안', '난연제 산업분석 및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또 삼성전자, LG전자, 제일모직 등 산업계에서도 브롬계 난연제 규제대응 방안, 환경친화적인 대체 난연수지 개발동향,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스테인레스, 세라믹 도장 등 친환경 내장재를 적용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 수질유해물질 강화... 수질법 개정

공공수계에서 검출되고, 유해성이 확인된 클로로포름 등 2개의 물질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신규 지정된다.

또, 벤젠 및 디클로로메탄 등 4개 물질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을 유발하면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유기인 및 6가크롬 화합물 등 11개 항목이 수질오염물질에 신규 지정되고, 발암성 등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1,2-디클로로에탄 및 클로로포름 등 2개종은 특정수질유해물질에 신규 지정된다.

이로써 수질오염물질은 현행 29개 항목에서 40개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17개에서 19개로 늘게 되었다.

또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벤젠 및 디클로로메탄 등 2개종은 배출허용기준을 신규로 설정하고, 선진외국에 비

해 배출허용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비소와 납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는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중 사무실은 과도한 행정규제를 개선해 기타 수질오염원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수질오염물질에 추가된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개정령안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설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에 입지할 수 없으며, 이들 물질을 무단으로 투기할 경

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질유해물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물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리대상 물질을 확대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물벼룩이나 송사리 등을 활용한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 7월부터 수도권에 친환경페인트 보급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현재보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5~7% 적은 페인트가 보급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용 페인트 등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을 설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건축용 도료는 용도에 따라 VOC 함유량이  $l$  당 50~800g 이내여야 하고, 자동차보수용 도료는 650~900(g/l)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또 2007년 1월1일 이후에는 페인트의 VOC 함유량을 현재 대비 15~17% 낮은 수준으로, 2010년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3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제품의 VOC 함유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페인트가 처음이며, 이를 통해 VOC배출량을 '06년에는 연간 8천톤, '07년부터는 연간 2만톤씩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OC는 여름철 오존오염의 원인물질일 뿐 아니라, 사람의 호흡기를 자극하고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며, 벤젠, 톨루엔 등은 그 자체로도 발암성이 큰 물질로 알려

져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002년 기준으로 연간 28만톤의 VOC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중 41%인 12만 톤 가량이 페인트 사용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도장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VOC는 방지시설을 통한 사후관리가 어려워 전량 대기중으로 방출되므로 페인트의 VOC 함유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7월 VOC 함유기준이 설정된 페인트의 보급을 앞두고, 지난 10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대량 사용자인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형 도료의 확대방안을 설명했으며, 6월중에는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생산현장을 방문해 수도권에 보급하는 환경친화형 도료의 용기 표시사항 등 준비사항도 점검한다.

아울러 VOC 저함유 도료제품을 지속 소개하고 사용 지침을 배포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 독도 자연생태계, 아직은 이상없다

환경부는 독도입도 규제완화에 따른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장·단기적인 생태계 영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사계절 자연생태계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 30일 동도(서도는 기상조건이 좋지 않아 조사하지 않음)에 대하여 봄철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생태조사단과 외부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하여 조류, 식물상 등 7개 분야에 걸쳐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조류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진홍가슴, 큰부리밀화부리, 바다제비, 붉은배지빠귀 등 25종이 관찰되었고 멸종 위기종인 매와 올빼미도 확인되었으며, 개체수가 가장 많은 팽이갈매기도 600여 쌍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관찰된 올빼미, 소쩍새, 뿔쇠오리, 쇠붉은뺨멧새, 흰배멧새, 까마귀 등 6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관찰된 종은 총 72종, 멸종위기 I 급은 매, 멸종위기 II 급은 물수리, 참매, 말뚝가리, 뿔쇠오리로 조사됐다.

특히, 팽이갈매기가 넓은 지역에서 번식하고 있기 때문에 번식기(4월~6월)에 빈번한 출입 등은 팽이갈매기

번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식생 및 식물상의 경우, 독도의 시설물을 건설할 때 육지에서 반입된 모래 속에 묻혀있던 종자가 퍼진 것으로 판단되는 벼과 식물인 돌피와 바랭이 등이 우점하여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고, 독도경비대 인력의 상주로 말미암은 것으로 판단되는 잣, 왕포아풀, 큰이삭풀, 소리쟁이 등의 귀화식물이 발견되었다.

해조류의 경우, 동도에 설치되어 있는 선착장 주변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선착장이 축조된 기반암 주변에는 부착생물 환경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서 해조류 식생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나 선착장 주변의 조하대는 기반 공사로 인하여 상당한 면적이 훼손되어 부착생물의 부착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번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독도에 외부식물종자의 유입으로 귀화식물이 섬 전체를 우점 할 우려가 있어 외부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와 앞으로 있을 여름, 가을, 겨울철 조사결과를 취합 분석하여 향후 독도 보전·관리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 원고모집안내

현장에서 땀과 노력으로 체험한 환경관리개선 사례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작지만 아름다운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환경업체들의 신기술자료 및 산업정보 등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분량에 상관없이 환영합니다.

▶접수 : E-Mail(keef@keef.or.kr), 우편 및 팩스

▶문의 : 연합회 편집국 T:(02)852-2291